

# 비법정계량단위에 따른 피해 사례

## Metric mishap caused loss of NASA orbi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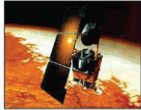
September 30, 1999  
Web posted at: 4:21 p.m. EDT (0021 GMT)

### In this story:

[Metric system used by NASA for many years](#)

[Four guide to nation's conversion law](#)

[RELATED STORIES, SITES](#)



NASA's Climate Orbiter was lost September 23, 1999

By Robin Lloyd  
CNN Interactive Senior Writer

(CNN) — NASA lost a \$125 million Mars orbiter because a Lockheed Martin engineering team used English units of measurement while the agency's team used the more conventional metric system for a key spacecraft operation, according to a review finding released Thursday.

The units mismatch prevented navigation information from transferring between the Mars Climate Orbiter spacecraft team in at Lockheed Martin in Denver and the flight team at NASA's Jet Propulsion Laboratory in Pasadena, California.



유경희

계량수정자노리  
공업연구원  
02-509-7231

## 1. 외국의 사례

미국 화성 기후탐사선이 화성궤도에 안착하지 못하고 진입하는 순간, 화성대기에서 타버렸는데 그 원인은 로켓 추진력 계산을 미터법이 아닌 야드-파운드 법으로 잘못 계산하여, 낮은 고도로 진입하여 폭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미국과 캐나다 국경 지역에서는 자동차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통일되지 않은 계량단위의 사용 때문이다. 캐나다는 제한 속도표시로 km/h 단위를 사용하는 반면, 미국은 여전히 mph(mile/h)단위를 사용하는데 기인한다.

## 2. 국내 사례

### ○ 서민을 울게 하는 평 단위 (엠파스 피해사례 1위 작품)

결혼 20여년 만에 어렵게 집을 장만한 강모씨, 고심 끝에 35평짜리 아파트를 구매했는데, 32평형 친구의 집에 가보니 자신의 집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았다. 우연히 법정계량단위의 광고를 보고 난 후 32평이나 35평이나 실 평수는 거의 똑같다는 사실을 알게 된 강씨. 1평이면 600만원 정도

이고, 3평이면 1800만원 상당에 해당하는 논인데, 똑같은 집을 1800만원이나 더 주고 샀다는 사실에 억울하고 황당함을 느꼈다.

### ○ 사기꾼으로 오해

결혼 20여년 만에 장만한 집을 수리하고 꾸미면서 살아온 박모씨, 아파트로 이사 가기 위해 집을 내놓았는데, 58평이라고 믿고 샀던 집이 부동산 중개소에서 52평이라는 확인을 받았다. 집 평수가 줄어들어 놀란 박 모씨는 집문서를 통해 “173 m<sup>2</sup> (52평)” 으로 표기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 졸지에 집 평수를 늘려 판매하려고 했던 사기꾼으로 오해받는 신세가 되어버렸다.

### ○ 남편의 보물 1호에 얽힌 진실

남편이 보물 1호로 여기던 10년 짜리 금 복권이, 시아버님께 받은 유일한 선물이란 한 함께 했는데, 급작스런 수술비 마련을 위해 팔 수 밖에 없었다.

눈물을 비금고 금은방에 가보니 시아버님이 그토록 강조하시던 금 열 돈은 37.5g이 아니라 35g밖에 되지 않았다. 금전적 피해도 피해지만, 시아버님이 그토록 강조하던 열 돈이 열 돈이 아니라는 사실에 남편은 부끄럽기까지 하면서도 돌아가신 시아버님이 모르셔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했다.

※ 비 범정계량단위 사용 피해 사례 공모 수상작

### 엠파스 비 범정계량단위 사용 피해사례 공모 개요

- 기 간: 2007.2.5일~2.18일(2주간)
- 공모제목: 범정계량단위에 대한 나만의 에피소드
- 공모결과: 총 570건 피해사례 응모작 중 15건 선정  
퀴즈참가자 9,629명 중 15명 선정  
사례는 한국계량측정협회 홈페이지에 게재 중
- 자료 소스: <http://203.246.164.59/kasto/event.html>

기술표준 20089